

#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金鳳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講口座: 010983~31~0513119  
 私書函: 서울 清涼郵遞局 137號

## 忠武公追念三九五五周年紀念大典

### 世宗文化會館에서 盛了

忠武公金時敏將軍 紀念事業會(會長 尹致暎·委員長 金在鴻)에서는 지난 二月十六日午後二時三〇分 世宗文化會館大會議室에서 朝鮮朝 壬辰倭亂 때의 晉州大勝捷을 紀念하고 忠義의 聖將 忠武公 諱時敏 將軍의 精神을 追慕하기 위하여 第三九五五周年 紀念大典을 成況裡에 舉行하였다.

本紀念會에 寄與한 功績이 至大 한 個人 및 團體에 對한 感謝 이 바로 壬辰三大捷이다. 晉州大捷이 壬辰戰亂에 있어 그 規模와 戰功이나 歷史에 미치 큰 義意와 影響은 決코 他에 못지않이 하거나 그 史實 이 事實대로 올바르게 傳承되 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當代의 朝廷에서도 戰功의 顯彰이나 策勳마저 疎忽히 禮遇되었음은甚 히 遺憾된 일일뿐더러 이는 歷史의 側面에서도 再照明 되어 後世에 傳承되어야 마땅하다.

#### 趣旨文

半萬年の 悠久한 民族史에 許한 外侵과 國難을 겪어 왔으나 그 中에서도 朝鮮朝 壬辰倭亂 (1952年)의 恥辱의 民族에 受難史를 들지 않을수 없으며 七年의 長期戰亂을 겪어가며 이 나날을 保衛하는데 靑史에 記 載되 救國의 大勝捷이 있었으니 閑山大捷 忠武公 李舜臣 寧博士의 慶祝辭 등이 있었고 辛州大捷(忠莊公 權傑將軍)과 이 收錄하고 있다.



(典禮席에 선 在鴻 委員長)

朝鮮八道가 倭寇에 蹂躪當하고 朝廷은 義州로 遁진하여 距離가 멀어 消息을 傳하는이, 없고 軍援은 미치지 못하였으며 모—는 人들은 絶望을 覺하며 功과 記錄을 事實대로 傳하지 못하였으니 怨痛함을 禁할진그 지 無다 하였다.

壬辰年 倭寇가 侵入하자 不過 三日만에 釜山浦, 東萊府가 強占 당하였고 뒤이어 漢陽, 開城, 平壤等 都邑과 行宰所와 朝鮮八道 坊々谷々이 차례로 蹂躪當하였으니 朝廷은 義州로 遁진하는 風前登火와 같은 나라의 悲運을 겪어야만 했으며 倭敵은 餘勢를 몰아 破竹之勢로 嶺, 湖南 攻略作戰을 세워 沿海의 朝鮮水使 李舜臣이 이끄는 水軍을 擊滅하려 하였으며 한 편으로는 湖南의 鎭 晉州城을 攻略하여 嶺, 湖南을 完全掌握함으로서 朝鮮國土 全境을 強占하려 하였다.

그러나 海戰에서는 李舜臣將軍이 이끄는 水軍에게 無慘하게 敗하였으며 陸戰에서는 5, 6萬餘大軍을 이끌고 金時敏將軍의 晉州城을 攻略하여, 湖南을 占領하려 大攻勢를 敢行하였으나 이미 倭敵의 計略과 敵情을 把握한 晉州兵使 金時敏將軍은 平素에 城과 城을 構築하는 등, 晉州城을 튼튼히 要塞化하는 한편 倭勢의 恐怖에 질린 民心을 收拾하고 모든 殺物을 城內로 거두어들여 軍糧을 確保하고 한때 歷任한 軍器寺判官의 經倫을 살려 朴晉, 李長孫과 協議 新兵器의 開發과 備蓄(天, 地, 玄, 黃, 銃筒, 飛擊震天雷 등)으로 一糸不亂한 兵力의 再編成으로 有備無患의 臨戰態勢를 갖추어 鎭海, 泗川, 固城, 昌原等 地의 倭寇陣을 奇襲 攻略하여 倭敵에 打撃을 加하여 海戰의 李舜臣에 戰勢를 支援하는 決定的 戰鬪을 敢行하는 한편 倭將 平小泰를 生捕(壬辰亂中 唯一無二한 快事)하여 義州行宰所까지 押送하니 朝鮮八道 全境이 倭敵의 掌中에 陷落된 줄만 알았는 朝廷에서는 金時敏將軍의 苦戰과 戰功을 稱頌하고 特進으로 晉州牧使(當時 通判)兼 慶尙右道兵馬節度使에 嘉善大夫를 除授하였다.

金時敏將軍의 神出奇沒한 用兵術과 戰略은 開寧, 錦山의 倭敵이 風聞한 들고도 魂飛魄散 逃亡하는 事態를 빚기도 하였음을 歷史는 收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不過 三千六百餘의 將卒(農軍, 娘子軍混成)을 이끌고 忠義를 盟誓하여 晉州城을 지켜 國家中興의 根本으로 삼을 것을 굳게 決意하고 將卒을 激勵하여 三萬五千餘의 倭寇와 14晝夜의 血戰 끝에 完全殲滅하여 嶺, 湖南을 保障하는 大勝捷을 이룩함으로써 國家保衛의 決定的 轉換點을 이룩하였다.

萬一 金時敏將軍의 晉州大勝捷이 없었는들 湖南은 無慈悲하게 蹂躪될 것이고 七年戰亂에 軍糧이 없어 支障할 수 없었을 것이며 李舜臣將軍의 閑山大勝捷에 決定的으로 支援되었음은 自明한 事實이었는 것이 다.

金時敏將軍은 晉州大勝捷을 거둔後 39歲를 一期로 陣中에 서 殉國(戰死)하시니 그 憂國忠節의 崇高한 精神과 戰功은 이 民族과 더불어 永久히 千秋에 빛나리라.

晉州城의 大敗로 因한 倭寇 將 豐臣秀吉은 敗戰에 恨을 품고 參萬五千餘兵力의 補償과 晉州城 攻略으로 復讐를 풀기 前에는 講和에 應할수 없었다 하였을뿐 아니라 日人이 尙장 崇拜하는 武人 補正成은 赤坂城戰에서 勝戰하고도 守城치 못하고 退城하였으나 朝鮮의 金時敏는 勝戰하고 守城하였다 比喩하여 名將中의 名將이라 極贊感嘆하였다함을 보아도 忠武公 金時敏將軍의 偉大 함을 可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近世 日本國史)

이에 四百餘年이 지난 오늘 南 來는 感 없지 않으나 우리 들은 南은 歷史記錄과 後孫이 간직한 史料等을 간추려 올바 른 傳記를 收錄하고 忠武公 金時敏將軍의 偉大한 遺德과 遺業을 기리고 發展시켜 歷史的 再照明으로 後世에 남기고자 紀念事業會를 創立하기에 이르렀다.

忠武公 金時敏將軍 紀念事業會 謹白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圓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빠짐없이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87年度定期總會開催公告

一九八六年度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 하오니 無漏 參席 하시기 바라오며, 別途 個別通知는 一切 省略 하오니 諒知 하시고 隣近 宗親과 相互 連絡 하시와 많이 參席 하도록 하여 주시기 仰望 하나이다.

一、日時: 一九八六年 五月 三日 (日)  
 午前十一時 正刻 / 午後二時까지

二、場所: 東大門區 忘憂一洞 二〇七—二 龍宮갈비집 (略圖 參照)

電話: 四九二—四九二—一一二, 四九三—〇一一—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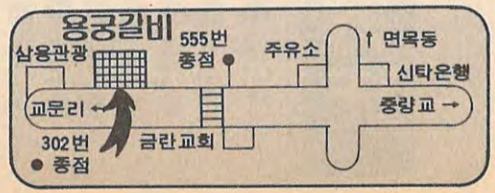
市内버스便 0점 2 275  
 3(중) 5 5  
 5(중) 2 255-1  
 5 1 6 6  
 1 1 6 6-1  
 1 6 6 5 5 0

※市内버스 忘憂里 終點 дук고 앞에 下車, 금란教會 맞은편 상봉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망우리 쪽 으로 도보 10분거리

三、案件: 1. 一九八六年度 決算報告의 件  
 2. 一九八七年度 豫算審議의 件  
 3. 大宗會定款改正의 件  
 4. 其他事項

四、會費: 五千圓(通常會費 二千圓 包含) 畫食 및 紀念品 提供

一九八五年 四月 十五日  
 會長 金明會 白



## 宗親諸位에게

화창한 丁卯年의 새봄을 맞이하여 尊敬하옵는 宗親의 家庭마다, 平安과 祖上님의 恩寵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宗會에서는 燦坤 會長님과, 泰東 副會長님의 逝去로 宗門의 悲哀를 겪었습니다. 特히 多年間 宿願의 翼元公府君 齋室 重建事業 推進中에, 두분제의 他界는 오직 안타까움을 禁할바 없 하오며 그동안 두분께서 宗會의 發展을 爲해 盡力하신 功績을 想起하면서, 冥福을 비는 마음 懇切 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月 28日에 常務理事會를 開催하고, 定款 第9條의 規定에 依據, 會長權限代 行으로 吉成 副會長을 推戴키로 可決하였음을 通告 하옵고 지금껏 닦아온 基盤위에서 새로운 發展이 더욱하도록 倍前의 鞭撻과 協助를 附託드리면서, 끝으로 宗親의 家庭마다 多福하시고, 하시는 일 에 더욱 發展 있으시기 祝願합니다.

1987年 4月 1日  
 安東金氏翼元公派宗會 副會長 秉默·在局·萬會·榮會·泰淑 等拜



(前號에서 계속)  
원종(元宗)은 조양필(趙良弼)이 일본에 떠나기 두 달 전에 이장용(李藏用)의 헌책(獻策)을 받아들여, 조양필(趙良弼)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조양필(趙良弼)의 도일(渡日)을 미리 알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일본의 위정자(爲政者)에게 전(傳)하기 위해서였고, 고려로부터의 첩서(牒書)가 받아들여, 일본 막부(幕府) 행정機關에까지 도달하였다. 이것은 원종(元宗)에게도 전하여 왔었다. 따라서 그것이 몽사(蒙使) 조양필(趙良弼)을 파견하는 일본의 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원종(元宗)의 기대는 무산(霧散)되어 버렸다고 할 수 없었다. 풍도(風濤)로 가로막혀 있는 한 작은 섬나라 일본의 말할 수 없이 아니라, 풀고 방자한 태도에 참을 수 없는 울화가 치밀었다.

일본이 몽병(蒙兵)에게 유린(蹂躪) 당하던 말년간에, 그러한 일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나, 거기에 말려들어 먹혀서, 고려에 죽음이 다쳐온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려의 관인(官人)도 무인(武人)도 백성(百姓)들도 현재 상태로서는 전부 굶주리고 있었다. 일본 정벌의 병선(兵船)이 합포(合浦) 馬山로부터 떠나게 될 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고려의 백성들의 대부분은 굶주려 죽고, 산야(山野)의 초목도 없어져 버릴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형태라도 지니고 있는 고려(高麗)라고 하는 국호(國號)도 알 수 없었다.

장탁(張鐸)이 개경에 들어오든 날, 원종(元宗)은 시자(侍者)를 병상(病床)에 누워 있는 이장용(李藏用)에게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이장용(李藏用)의 말이 지금 상

수 없는 일이었다. 원종(元宗)은 일응(一應)서장관(書狀官) 장탁(張鐸)에게 세조(世祖)에게 하사(賫使)를 파견하는 일의 가부(可否)를 타진하여 보았다. 그러자, 장탁(張鐸)은 그와 같이 보아 주신다면, 그것은 국신사(信列) 조양필(趙良弼)이라는 지, 또 병서에 있는 몸이어서, 현재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음을 나타내었다. 지금 노쇠(老衰)하고, 사경에 있는 이장용(李藏用)으로서, 이장도의 재주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종(元宗)은 이상주문(上奏文)을 서장관(書狀官)에게 정사시켰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미사랑(彌四郎) 등 12명의 일본인을 일본으로 보내 오라는 사자(使者)로 간

하는 일은 태자(太子) 심(諱)이 맡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임연(林衍)의 폐립(廢立) 사건 이래, 세조(世祖)에게 주상(奏上)하는 일이 타든지 호소하는 일이라든지 해서, 원(元)에 입조(入朝)하는 도수가 늘어났고, 심(諱)은 연도(燕都)와 개경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往來)하고 있었다.

심(諱)의 이번의 귀국(歸國)에 있어서, 한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심(諱)을 위시하여 일행(一行) 30수명의 자들이 전부 번발(辮髮) 머리를 깎아 길게 뒤로 늘어뜨린 것을 심(諱)은 왕궁(王宮)에 들어가자마자, 곧 귀국 보고를 하기 위하여 부왕(父王) 원종(元宗)을 알현(謁見)하였는데, 원종(元宗)은 우리 나라의 풍속을 버리고 원(元)나라 제도를 따른 심(諱)을 꾸짖었다.

그런즉 심(諱)은, 고려가 원(元)나라로부터 과(課)하여진 부담(負擔)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서, 원(元)나라에 들어가는 입조자(入朝者)가 번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차려입는 정도야 일어야 되며, 원종(元宗)은 답에 대하여, 원종(元宗)은 답변할 말이 없었다. 실제에 있어서 다소라도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태자가 몽고의 풍속을 취했다고 해서 번발(辮髮)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목전(目前)에 번발(辮髮), 호복(胡服)을 한 심(諱)을 보는 순간, 원종(元宗)은 그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비애를 느꼈다. 심(諱)은 다시 말하였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만큼 감히 그 말을 입으로 내는 것 같은 말투였다. 몽고는 벌써 세계까지의 몽고가 아니고, 대원국(大元國)이다. 그 대원국(大元國)은 부왕(父王)이 생 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강대하고 훨씬 큰 부(富)와

# 風濤 (16) 井上靖著 金崙會譯

주하고서, 세조(世祖) 후비라에게 바칠 축하의 문사(文詞)였다. 세조(世祖)가 이것을 어떠한 기분으로 읽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고려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다. 이장용(李藏用)이 정사드려서 쓴 것이 틀림없는 문사(文詞)가, 그대로 세조(世祖)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기에 받아들여져서 읽을 이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세조(世祖)가 일본에 대한 노여움이, 일시적이어서 다소라도 누그러진다면, 그것은 그것으로서 고려로서는 고마운 일이었다. 최악의 사태는 하루라도 늦추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하루라도 늦추어 지는데 따라서 세조(世祖)가 일본에 향(向)하는 눈이, 일본으로부터 돌려서, 먼 곳으로 방향을 옮기게 될는지도 알

병력을 가지고 있다. 신년(新) 연(賀筵)에 모인 만국의 사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수였으며, 그 성대한 의식은 필설(筆舌)로 다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고려(高麗) 국(國)으로서, 고려(高麗)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심(諱)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고려는 형식상의 일국(一國)으로서의 체면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원국(大元國)의 한 번속국(藩屬國)에 지나지 않는다. 세조(世祖) 후비라이의 허가 없이는 왕궁(王宮)의 문 한쪽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상태였다. 자기는 때때로 원나라에 입조(入朝)하기 때문에, 세조(世祖)의 기분과 추밀원(樞密院) 및 중서성의 위정자(爲政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소 알고 있지만, 그들은 부왕(父王)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려라는 나라를 독립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부왕(父王)도 차제에 종래의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한 번속국(藩屬國)의 장(長)으로서 세조(世祖)에 신사(臣事)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라를 세워 나가는 길도 스스로 열려져 갈 것이다. 그 이외는 고려가 살아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찌기 부왕(父王)은 이장용(李藏用)의 권고로 심(諱) 때문에 세조(世祖)에게 공주(公主)의 강가(降嫁)를 청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때 이장용(李藏用)의 생각했던 것은 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국(大國)에 인접하면서 나라를 세워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대국(大國)의 안에 들어가서 그 일부(一部)로서 나라를 세워 간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다.

(다음호에 계속)

용(元宗)부터 한통의 서장(書狀)이 원종(元宗) 앞으로 도달하였다. — 성난 파도를 헤치고, 멀리 일본 땅에 이르러, 모든 힘을 다하여 승복(華服) 시켜, 온 천하의 평화를 기쁘게 하였읍니다. 오직 왜인(倭人) 그들은 바다 구석에 처해 있습니다. 선무사(宣撫使) 조양필(趙良弼)이 지난해 9월에 금주(金州)에 도착, 배(舟)로써 바다를 건너서, 이해 정월 十三일, 일본의 사자 좌일(佐一)이 12명의 과 같이 돌아와, 합포현(合浦縣)에 도착하였읍니다. 이것은 곧 진실로 성덕(聖德)의 회수(懷綏) 이루어만져 편안하게 한다고 사료하읍니다. 그는 곧 황룡(皇風)임금의 은덕을 입은 바람을 힘입어, 온 조롭게 무사히 바다를 건너 비로소 그의 직책을 바라보고 신의 기쁜 마음을 어찌 다

대방이 자기의 눈앞에서 입을 로 말하는 것같이, 그대로의 음성과 억양같이 들려왔다. — 이상주문(上奏文)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기가 부적당하다면 벗어 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 일년간 조열(朝列) 조양필(趙良弼)이라는 지, 또 병서에 있는 몸이어서, 현재 미묘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 없음을 나타내었다. 지금 노쇠(老衰)하고, 사경에 있는 이장용(李藏用)으로서, 이장도의 재주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종(元宗)은 이상주문(上奏文)을 서장관(書狀官)에게 정사시켰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미사랑(彌四郎) 등 12명의 일본인을 일본으로 보내 오라는 사자(使者)로 간

장탁(張鐸)의 일행이 바쁘게 개경에 들어가서, 곧 개경에서 떠날 날로부터 꼭 10일이 경과한 1월 28일에, 이장용(李藏用)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享年) 七十二세,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유언에 따라 화장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장용의 시체는 세 사람의 승려(僧侶)의 손에 의하여 화장이 이루어졌다. 심(諱)은 추운 날이었으나,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날이어서, 이장용(李藏用)의 시체를 태우는 연기는 북으로 하늘로 솟아 올라갔다.

심(諱)은 왕궁(王宮)에 들어가자마자, 곧 귀국 보고를 하기 위하여 부왕(父王) 원종(元宗)을 알현(謁見)하였는데, 원종(元宗)은 우리 나라의 풍속을 버리고 원(元)나라 제도를 따른 심(諱)을 꾸짖었다. 그런즉 심(諱)은, 고려가 원(元)나라로부터 과(課)하여진 부담(負擔)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서, 원(元)나라에 들어가는 입조자(入朝者)가 번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차려입는 정도야 일어야 되며, 원종(元宗)은 답변할 말이 없었다. 실제에 있어서 다소라도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태자가 몽고의 풍속을 취했다고 해서 번발(辮髮)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목전(目前)에 번발(辮髮), 호복(胡服)을 한 심(諱)을 보는 순간, 원종(元宗)은 그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비애를 느꼈다. 심(諱)은 다시 말하였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만큼 감히 그 말을 입으로 내는 것 같은 말투였다. 몽고는 벌써 세계까지의 몽고가 아니고, 대원국(大元國)이다. 그 대원국(大元國)은 부왕(父王)이 생 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강대하고 훨씬 큰 부(富)와

병력을 가지고 있다. 신년(新) 연(賀筵)에 모인 만국의 사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수였으며, 그 성대한 의식은 필설(筆舌)로 다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고려(高麗) 국(國)으로서, 고려(高麗)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심(諱)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고려는 형식상의 일국(一國)으로서의 체면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원국(大元國)의 한 번속국(藩屬國)에 지나지 않는다. 세조(世祖) 후비라이의 허가 없이는 왕궁(王宮)의 문 한쪽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상태였다. 자기는 때때로 원나라에 입조(入朝)하기 때문에, 세조(世祖)의 기분과 추밀원(樞密院) 및 중서성의 위정자(爲政者)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소 알고 있지만, 그들은 부왕(父王)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려라는 나라를 독립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부왕(父王)도 차제에 종래의 생각하고 있는

(다음호에 계속)

## 贊助人名單

- 壹萬圓 都評議公派 進秀 (日本)
- (원貨五五、三五七圓)
- 五萬圓 西部慶南宗親會(晉州) 永振 (九宜洞)
- 參萬圓 按廉使公派 在光 (大林洞)
- 參萬圓 翼元公派 提學公派宗親會 宗親會
- 貳萬圓 都評議公派 聲秀 (義城)
- 壹萬圓 翼元公派 在會 (大邱)
- 壹萬圓 翼元公派 居昌宗親會 在天 (富川)
- 壹萬圓 翼元公派 在泰 (墨洞)
- 壹萬圓 翼元公派 在甲 (方背洞)
- 壹萬圓 大司成公派 在榮 (大邱)
- 壹萬圓 翼元公派 按廉使公派 聖學 (乙支路)
- 壹萬圓 提學公派 在相 (美園)
- 壹萬圓 都事公派 在賢 (星州)
- 壹萬圓 開城尹公派 潤珍 (扶餘)
- 壹萬圓 提學公派 道應 (天原)

## 將學基金寄托

- 拾萬圓 提學公派 提川宗會 在鶴 (日本)
- 拾萬圓 翼元公派 在健 (日本)
- 參拾貳萬圓 判三司公派 光清 (安岩洞)
- 拾萬圓 翼元公派 洙栢 (新川洞)

大同綿業社 代表  
翼元公派 金榮德  
大邱市南區 鳳德洞 九六〇 (鳳德市場內)  
電話·六六一五三〇六





# “확고한 가치관 심어줘라”

## 청소년·노인문제 전문가의 「한인 2세 선도」

인간문화 연구원 원장 金道振 (按廉使公派)

### 가치관의 혼돈

국내에서나 미국에 나가 있는 교포청소년들은 해방후 40년간 주로 미국식 교육을 받아왔다. 서구의 물질문명의 우수성에 밀려 어른이 될이 할것없이 정신 없이 이에 쫓겨왔다.

이로인해 우리전통 정신문화는 그 세계적 우수성을 잃은채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그래도 일말의 이해가 간다.

그들은 그나라 환경속에서 생활해야 할 필연성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까지 우리 정신 문화를 버리고 남의것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로인해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에서의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크게 우려된다.

이들은 서구식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전통 정신을 지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기성세대 대의 큰 잘못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대오각성하여 하루 빨리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이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겠다.

### 서구인들의 새로운 가치관 모색

선진사회라고 불리우는 서구에서는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벽에 부딪쳐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여 우리의 전통 정신문화를 찬양, 이를 따르려고 하고있다.

1985년 봄 방한한 서독 제일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국장 피터·그랩씨는 우리의 전통 정신문화를 연구 시찰한 바 있다. 그는 서구사회에서도 우리의 정신문화로 새로운 가치관을 재정립 해야 겠다고 결론지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양로원으로부터 노부모를 다시 가정으로 모시는 가정이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러 약 60만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미국의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대가족 제도를 따르려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경영인들은 직장보다 나를 앞세우는 종업원들의 노사 문제로 도산하는 예가 속출 함으로 우리의 가족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각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도방향과 방법

1. 경제·기술·지식 등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가 뒤져 있어 하루빨리 이를 배워야 겠지만 정신문화만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

2. 물질위주의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맞지 않음뿐 아니라 서구인들도 지식층에서는 우리를 따르려하고 있다는 것.

(1984년 한국경제기획원통계에 의하면 유교사상을 배경으로한 사고방식과 행동이 전국민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3.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4. 부모에 대한 효, 나라사랑, 경노정신, 상대방에게 믿음 등을 우리의 전통윤리가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며 이를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동물과 다름없다.

5. 의사, 법관, 회사사장, 돈 많은것 이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6. 국내에서는 정부·학교·가정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전인 교육에 주력할것.

7. 가정·학교·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선 인간교육, 다음에 지식, 예, 기능교육으로 방향을 바꿀것.

8. 국내에서나 미국교포 사회에서나 부모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활동에 빼앗겨 자녀들의 인간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음을 시정할것.

9. 미국교포사회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부모의 일을 돕게 한다던지, 고국방문 혹은 사회교육단체에 참가시키는등 학교외에 특별교육을 시킨다.

10. 교포사회에서는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학교에서는 인간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명심할 것.

11. 가정·사회·학교 전체가 교육장임을 부모들은 명심하고 학교에만 맡기지 말것.

12. 청소년들의 잘못을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지극한 사랑으로 다스릴 것.

13. 자녀들의 입장을 인정해 주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

14. 자기 스스로가 깨닫도록 유도하고 주입식으로 하지 말것.

15. 이상과 꿈을 갖게 하되 현실적으로 즐겁고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청소년들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

청소년들은 훗날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존재이다. 이곳 우리 청소년들과 노인문제가 날로 악화돼 가는듯 싶어 안타깝다. 서구인들에 비해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는 직결되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하면 자연 노인 문제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청소년들이 나이들면 노인이 되는 것이니 청소년이 건전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건전해 지는 것이다. 우리 한국노인들은 그 사고방식이 나보다도 우리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사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 서구인들 보다 아름답고 또 그네들과 다른 점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짜있는 이곳 미국은 노인들에게 물질적으로는 큰문제가 없어 다행한 일이다.

### 악화되는 청소년문제

그러나 청소년들의 실정은 좀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부모들은 고국에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사고방식에 젖어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와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요구한다. 반면 이곳 사회나 학교에서는 아주 판관으로 미국식 사고 방식과 행동을 해야할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은 자연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이곳 환경에 맞춰 행동해야 함으로 여기서 가치관의 혼돈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사고와 행동이 갈피를 못잡는 이들은 자연 부모와의 의견충돌, 가정불화 등으로 탈선을 일삼게 된다.

### 악화되는 청소년문제 예방책

이문제를 예방키 위하여 아래 몇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우리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이나 지식면에서 앞서있는 이땅에서 공부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찬란한 서구인들이 추종할 수 없는 정신문화를 가진 조국이 뚜렷이 있다. 그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은 어엿한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한국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심어주어야겠다. 우리 정신 문화가 서구인들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일부 지식층에서는 우리를 따르려고 각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겠다. 그 근거로 아래 몇가지를 제시코자 한다.

첫째, 1985년 봄, 서독제일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 국장인 피터 그랩씨가 방한한바 있다. 그는 우리 정신문화를 각방면으로 시찰 연구한 후 「서구의 물질위주의 개인주의는 벽에 부딪혔고,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겠다」고 했다.

둘째, 일본 쓰꾸바 대학에서 1985년 8월 우리의 대철학자 퇴계 선생 사상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그때에 공산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16개국에서 무려 262명의 학자들이 몰려왔고 그중에는 중공에서까지 8명이나 참석하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현재 우리 정신문화는 퇴계 율곡 선생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는 분명히 우리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할수 있다.

셋째, 필자는 일본이 대동아전

쟁 패망후 불과 40년만에 세계경제 대국이된 원인과 저력을 조사 연구한바 있다.

그들은 임진왜란후 우리 선조들로부터 배워간 유학 성리학 등으로 그들의 정신문화의 뿌리를 삼고 있다. 그들 국민 개개인에 의식화된 이정신이 밑거름이 되어 경제대국이 된것을 확인 하였다. (일본 교육계 제인사 52명과 토론끝에 결론지었음)

넷째, 통계에 의하면 미국내에서도 1960년대 보다 80년대에 이르러 약 60만세대가 노부모를 양 노원으로부터 가정으로 다시 모시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노인모시는 상담소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대가족제도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 미국에 살아도 한국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정신문화의 우수성은 알지 못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물질, 우리보다 나를 앞세우는 개인주의 사상만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부모들의 불만을 사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즐겁지 않으니 밖으로만 나돌아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앞날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 부모들의 책임막중

교포청소년들은 그부모들의 무책임한 지도아래 탈선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미운일곱살이라는 말과 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후로이드씨의 말과 같이 어려서부터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것이다.

### 중친 어른신 제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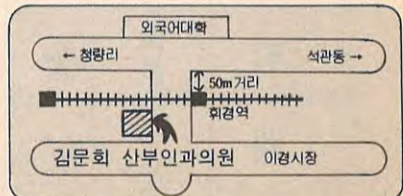
화창한 새봄을 맞이하여 가정에 화평과 성운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10여년간 재직해온 경희대학병원 산부인과를 나와서, 단독으로 휘경전철역 바로앞(외국어대학전면, 안동김씨 대종회관 뒷면)에 김문희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진료와 상담에 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올립니다.

## 김문희산부인과의원

### 진료안내

- 산전 산후관리
- 대·소 복복수술
- 자궁암조기 진단
- 부인과 성형수술
- 불임 및 가족계획상담
- 냉동치료
- 산실·입원실 완비
- 초음파 진단
- 병리검사



### 원장 의학박사 김문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80-8호  
전화: 병원 965-6669 (휘경전철역앞)  
※ 24시간 엠브란스 대기

본보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청소년 및 노인문제 전문가 김도진씨의 「한인 2세들의 선도」에 관한 기고를 연재합니다.

1922년 서울출신의 김도진씨는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대왕상가주식회사 회장, 한주상사회장등 업계에 몸담아 왔으나 인간교육연구원을 개설, 한국의 청소년 및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와 사회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79년 인간교육형주택단지를 건설하기도한 김씨는 지난 7월 미국에서의 인간교육실태와 한국청소년과 노인문제 연구차 도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칭 사람되라는식의 막연한 방법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사랑, 친구나 상대방에게 믿음을 갖고 신용을 질서를 잘 지킴으로써 주위에서 칭찬받고 인정 받는 즐거움, 또 이에 대한 보람 등을 꼬집어 알기 쉽게 지도해야겠다. 즉 한국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제시하여 이를 알고 실천하지 못하면 동물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겠다. 가치관의 혼돈으로 갈피를 못잡는 청소년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나무랄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한국내에서 일어난 일로 보건장관리소장 의학박사는 환자들을 속여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그는 같은 동료 의사와의 재산다툼 끝에 폭로 당하여 패가망신 하였다. 이는 의사가 되기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인간 되기전에 기술과 지식을 먼저 가르친 결과이다. 즉, 돈많은 것만이 사람다운 사람인양 그부모나 본인은 중대한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부모가 깊이 깨우쳐주지 못한 탓이리라. <계속>



一九八六年十二月二十日 吾金大宗會全國理事會에서 再論된 바 있었던 忠烈公 神道碑面에 쓰여 있는 「上洛君」에 對한 封君의 事實與否와 「上洛君 開國公」과 「上洛郡開國公」의 勳·爵中 어느 쪽이 바른 表現인가? 하는 問題가 뚜렷이 考證되었기에 이를 現在 推進中에 있는 神道碑面 建立에 碑石移堅時에 是正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를 提言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이를 確實히 究明하고자, 그 동안에 高麗史(世家篇·志·表·列傳篇·目錄)全一三九卷을 두루 確認하는 일 外에도 高麗史節要와 麗史提綱, 吾金大同譜 首卷·庚辰譜影印本과 高麗貴族社會官職制度 等에 나타난 史料를 蒐集하여 比較하고, 이를 分析 檢討한 結果, 忠烈公의 後孫으로서 그동안 祖上의 勳爵을 疏忽히 보아 넘긴 罪責감마저 들어 이를 褻리 是正함이 當然하다고 느껴 이에 서술러 써 보는 바이다.

무릇 高麗史가 編修되기까지에는 많은 迂餘曲折이 있었다고 들은 바이다. 朝鮮國 太祖李成桂가 鄭道傳과 鄭摠 等에게 命하여 高麗史를 撰修케 하였고, 그 後에도 數次 改修하였다 하며, 世宗朝에 이르러 鄭麟趾와 金宗瑞가 다시 命을 받아, 傳記體로 옮기면서 史乘(高麗根本史料原本)을 李太祖의 建國理想에 合理化시켜 校正 整理하고, 五代 文宗朝에 와서 撰進하여 完成한 것으로, 世家篇四六卷·百官志·三九卷·表·二卷·列傳 五〇卷·目錄 二卷으로 都合 一三九卷으로 編纂되어 있다.

이를 探究함에 있어, 原文이 純漢文이며, 그 量이 尠大하여 解釋上의 難澁과 閱覽에 많은 苦衷이 있었다.

高麗人物의 史績을 查할려면, 例컨대 目錄에 나타난 「金方慶」編을 찾아, 列傳만을 읽어 考證하기에 도 相當한 힘이 들기 마련이다.

本人의 目的이 忠烈公의 史績을 再探索하는데 있었기에 世

家篇을 가장 注意 깊게 읽지 않을 수 없었다.

忠烈公의 史績은 列傳보다 世家篇에 그 行蹟의 一舉一動이 詳細히 記錄되어 있어 이를 考證한 바 그 考證은 王室의 歷史와 더불어 燦然히 빛나고 있었음을 다시 말해 둔다.

一、麗史 卷七七·百官志의 勳·爵은 高麗 文宗代에 制定됨을 確認한다.

(가) 公·候 二品 食邑 三千戶

(나) 郡公 食邑 三千戶

(다) 縣後 食邑 一千戶

(라) 縣伯 食邑 七百戶

(마) 開國子 食邑 五百戶

縣男 食邑 三百戶

이 勳·爵 制度가 制定 當時

一、天水縣開國侯 姜邯贊 食邑 三千戶

樂浪郡開國侯 金當軾 食邑 三千戶

普康郡開國侯 崔忠獻 食邑 三千戶

上洛郡開國公 金方慶 食邑 三千戶

慶源郡開國伯 李藏用 食邑 二千戶

忠烈王二十一年(二十一年(二九五)條

二、高麗 文宗代에 制定된, 이 勳·爵은 忠烈王 以後 忠宣王代에 이르러 官制改革을 斷行하여

(가) 諸君(王族인 大君·君 및 異族封君)從一品

(나) 元尹 從二品

(다) 正尹 從三品으로 改革하

(라) 八月 己巳에 「賜 金方慶

由가 없다고 할 것이다.

五、高麗史 列傳에 上洛郡開國公 金方慶에게 食邑 一千戶 食實封 三百戶로 記錄되어 있고, 忠烈公行狀 또한 食邑 一千戶로 되어 있으니, 이는 어찌된 일인가?

이제 上記한 勳爵制度를 살펴볼 때 食邑 一千戶는 縣侯가 받은 食祿에 該當한다.

本人은 이 食邑 一千戶에 對하여는 數十年前부터 疑訝心을 품고 그 反證을 찾아오나, 結局 一千戶의 記錄은 移記上의 誤謬였다고 斷定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 理由로는

一、福昌府院君 貞簡公(永照)의 집에 忠烈公의 行狀이 秘藏되어 있었으나, 해가 오래되어, 종이가 떨어져지고, 먹빛이 번져져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쓰게 했다... 安山君 安震公은 跋에서 쓴, 史實을 記憶한 것과,

二、大司世公 楊若齋 第二子인 成川府使 明理公이 忠烈公行狀을 秘藏하였다가, 郊隱鄭以吾公을 經由, 安東大都護府使 崔開公에 이르러 楷字로 精書해서... 云云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나, 移記한 때, 列傳만을 參考한 誤記가 아니었겠느냐로 推理도 하는 바이다.

三、上洛公 金方慶 墓誌가 近世에 發見되어 大宗會에서 備置 精書하고 大同譜에 掲載한 것을 보면 이 또한 分明히 食邑 一千戶로 되어 있음 을 본다.

이 墓誌는 翰林府院君 李齋賢公의 父親인 臨海公 李墳公이 撰하였는데, 李墳公은 當代에서는 손꼽히는 史官인데다, 大德四年 九月에 撰했으니 忠烈公 葬禮時에 埋藏하였다고 볼 수 있어 誤記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本人은 以上の 考證으로서, 狼狽히도 忠烈公 神道碑 碑陽文을 다음과 같이 校正된 것을 建議하여 두고저 할 따름이다.

宗人들께서 忠烈公 上代인 叔承公 ↓ 日號公 ↓ 利請公 ↓ 義和公 ↓ 敏成公 ↓ 孝印公 가지의 歲祀 問題를 學論하신은, 이 또한 반가운 事實이나, 此際에 吾宗의 家庭에 秘藏되어 있는 家乘이나, 史乘들을 더 發掘하고 이를 再考證하고, 더욱 研究하여 間或한 二代의 漏落? 系代가 있다면 補綴함이 우리 后孫들의 課題라 생각된다.

安東金氏大宗會理事 大司成公派參義公宗會長 在承

按廉使公派 金聖學

계림사진관 金聖學

서울·中區乙支路六街二〇一四

提學公派 金在碩

星州郡金水面厚平洞七三四

郡事公派 金在碩

부여군임천면두곡리

祝發展

安東金氏 西部慶南宗親會

代表 金在善

安東金氏居昌宗親會

代表 金守會

大司成公派 金在吉

慶州市拜洞一七二

翼元公派 金甲植

서울·江南區方拜二洞四五五〇

都評議公派 金聲秀

義城郡點谷面沙村洞

電話·(〇五七六) 三三一四〇二五

神道碑 移豎에 提言함

安東金氏大宗會理事 大司成公派參義公宗會長 在承



神道碑 移豎에 提言함

安東金氏大宗會理事 大司成公派參義公宗會長 在承



(꽃)





# 碩士學位論文

## 金方慶研究

清州新興高校 教師 李相哲

### 略 歷

- 1953年生
- 1981年 淸州大學 歷史敎育科 졸
- 1986. 8 淸州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
- 현 淸州신흥고등학교 敎사.

世子 諱이 蒙古에 入朝한 동안 발생했던 林衍의 元宗 廢位 사건은 世子の 적극적인 對蒙 활동으로 환원된 셈이며, 이를 계기로 高麗 王室은 蒙古 세력을 등에 지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高麗 王室은 외세를 배경으로 아직까지 對立적인 위치에 있던 武臣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와같이 武臣政權 退潮期에 高麗 王室이 외세를 등지고 그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동안 武人으로서 의 金方慶은 王室의 측근으로 부상하여 크게 出世할 수 있게 되었으며, 崔坦 등이 반란을 일으켜 王京을 치고자 할 때 이를 저지함으로써 高麗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신 의 出世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金方慶은 三別抄 토벌 과정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두번째로 蒙古에 갔던 元宗이 林衍을 제거하기 위해 軍사를 請하고 出陸還都를 약속한 후에 蒙古 軍사와 함께 귀국 길에 올랐을 때(元宗 11년 1270 2월), 林衍은 蒙古와 싸워 대결할 결의를 굳히다 등장이 나서 죽고 아들 林惟茂가 아버지의 職을 이었다.<sup>30)</sup>

이때 귀국중에 있던 元宗은 사람을 보내 文武 兩班으로 부터 백성에 이르기 까지 開京으로 돌아오도록 命을 내리었다. 그러나 林惟茂는 還都하면 權力을 잃게될 것이 두려워 王命에 항거하여 蒙古와 對戰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sup>31)</sup> 그러나 江都를 둘러싼 국내 外의 정세는 이미 기울었고, 蒙古의 軍대도 벌써 開京과 西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항전에 대한 高麗의 國론도 분열되어 있었으므로 武人이 계속 政權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林惟茂는 洪文系 宋松禮등에게 勸諭를 당하고 100년만에 武人 政權의 終焉을 끝내고 말았다.<sup>32)</sup>

이에 江都에서는 宰樞회의를 열고 開京으로 還都할 것을 議論하고 날자를 정하여 발표하였다. 조정에서 出陸 還都를 결의하자 三別抄는 王의 命령을 거부하고 反政府 反蒙古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일제히 봉기하였다.<sup>33)</sup> 三別抄는 對蒙抗戰의 전시기를 통하여 武人 政權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三別抄는 본래 정부 軍대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權臣의 사병 구실도 하였다. 또 三別抄는 高麗의 國防력을 대표하여 蒙古와 抗戰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약을 하였다. 三別抄가 國王과 蒙古에 반대하여 還都에 응하지 않고 무력 봉기를 감행한 행동의 저변에는 蒙古에 대한 증오와 적의의 감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三別抄는 國王과 武人들의 대립관계에 있어서 國王측과는 반목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 三別抄 봉기의 궁극적 목적은 蒙古에 대한 高麗의 종속화를 막자는데 있었다.<sup>34)</sup>

그러나 林惟茂가 제거됨으로써 武臣 政權이 붕괴되고 高麗 조정은 開京으로 還都하게 되었다. 이로써 高麗와 蒙古와의 오랜 투쟁은 청산되고 새로운 양상의 對元 관계가 전개되었다. 이때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한 三別抄를 金方慶은 高麗 대표로 蒙古와 함께 토벌하여 큰 功을 세우게 되었다.<sup>35)</sup> 金方慶이 忻都 등과 함께 元宗 12년(1271) 5월 珍島의 三別抄를 토벌하고 돌아오자 守太尉 中書侍郎 平章事를 加하였다.<sup>36)</sup>

그뒤에 耽羅에 들어간 三別抄를 토벌하기 위해 金方慶이 判追討事가 되어<sup>37)</sup> 忻都 등과 元宗 14년(1273) 4월 耽羅를 평정하였다.<sup>38)</sup> 金方慶이 아들 綬(忻) 등을 보내 와 승전을 보고하니 王이 綬를 大將軍으로 삼고, <sup>39)</sup> 6월에 金方慶이 개선하니 王의 대접이 극진하였다.<sup>40)</sup> 또 王이 都兵馬使와 省臺에 이르기를 “金方慶의 功烈이 특이 하니 褒賞의 恩典을 速히 議論하라” 하였으며,<sup>41)</sup> 또 “병든 것이 다시 소생한듯 하니 功業의 重함을 맹세코 잊지 못할것이다”라고 하며<sup>42)</sup> 이날에 金方慶을 侍中으로 삼았다.<sup>43)</sup> 그리고 同年 7월 金方慶이 元의 부름을 받아 元에 가니<sup>44)</sup> 元帝의 대접이 매우 후하여 좌석이 元 丞相에 버금가는 자리였다.<sup>45)</sup>

政府和 蒙古에 반대하여 일어난 三別抄를 金方慶은 王命으로 蒙古軍과 연합하여 토벌함으로써 62세에 侍中까지 되었으며, 동시에 元帝의 지극한 사랑을 입게 되었다. 또 당시 金方慶의 三別抄 토벌이 高麗에서 얼마나 큰 평가를 받았는지 俞千遇의 詩를<sup>46)</sup>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金方慶은 또 日本 遠征에서 활약하므로 크게 부상하였고 마침내는 당시의 유력한 權力家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蒙古와의 전쟁 관계가 청산되고, 새로운 양상의 對元 관계가 전개될 때 일어난 三別抄의 저항은 元宗 14년(1273) 평정되었지만, 곧 이어 元은 日本 遠征을 위하여 高麗의 협력을 강요하였다. 세계 정복을 꾀하는 元은 高麗를 통하여 日本의 朝貢을 받으려 했으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많은 軍사를 동원하여 日本을 征伐하기로 작정하고, 마침내 高麗로 하여금 막대한 軍사적 경제적 부담을 강요해 왔다.<sup>47)</sup> 그리하여 金方慶은 高麗 都督使가 되어 63세의 나이로 아들 忻, 사위 趙朴과 元의 都元帥 忽敦등과 忠烈王 즉위년(1274) 10월 日本 遠征을 단행하였다.<sup>48)</sup> 이때 攻防戰에서는 특히 金方慶이 無敵의 승리를 계속 하였지만 뜻하지 아니한 태풍으로 日本征伐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sup>49)</sup>

- 註 30) 〈高麗史〉世家 卷26 元宗11年 2月 乙未條
- 註 31) 〈上揭書〉同年 5月 庚戌條
- 註 32) 〈上揭書〉同年 5月 癸丑條
- 註 33) 〈上揭書〉同年 6月 乙巳條
- 註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7 PP. 383~384. 탐구당
- 註 35) 아무렴 三別抄의 세력은 매우 강성하여, 국내인심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으니 〈高麗史節要〉卷18 元宗11年 9月條에 「…時 賊勢甚熾 州郡 望風迎降…」이라 하여 바람따라 적에게 항복하는 현상을 이루었으며 또 金堯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完)」 震檀學報 제13권 P.45에 承化侯를 眞王으로 생각하여 謁現하는 경우도 있었다.
- 註 36) 〈高麗史〉世家 卷27 元宗12年 11月 丙戌條
- 註 37) 〈上揭書〉世家 卷27 元宗14年 春正月 庚申條
- 註 38) 〈上揭書〉同年 夏 4月 庚戌條
- 註 39) 〈高麗史節要〉卷19 元宗14年 夏 4月條

- 註 40) 〈高麗史〉世家 卷27 元宗14年 6月 丁酉條에 「元帥 金方慶凱還 王慰諭甚渥手執 紅綬一腰賜之 大宴將士」
- 註 41) 〈上揭書〉世家 卷27 元宗14年 閏6月 癸亥條
- 註 42) 〈上揭書〉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43) 〈上揭書〉世家 卷27 元宗14年 閏6月 癸亥條
- 註 44) 〈上揭書〉同年 7月 乙未條
- 註 45) 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46) 〈東文選〉卷20 七言絕句 賀元帥金公方慶攻下耽羅 北來萬馬不隨鞭 南聚群龍欲吠天 馴既難馴制難制 論功何止上凌煙
- 註 47) 金澈珉 「元의 日本遠征과 麗·元關係」 〈建大史學〉 3. 1973 順
- 註 48)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즉위年 冬10月 乙巳條
- 註 49) 金澈珉 前揭論文 P. 33

忠烈王 元년에 官制를 고쳐 金方慶에게 僉議中贊 上將軍 判典理 監察司事를 授수 하였으며,<sup>50)</sup> 同年 12월에는 日本 遠征에 대한 功으로 金方慶을 上柱國으로 삼았다.<sup>51)</sup> 이듬해 忠烈王 2년 金方慶이 賀聖節使로 元에 갈때 忠烈王이 元의 中書省에 上書하기를 “金方慶은 官軍을 보좌하여 珍島와 耽羅를 격파하였으며, 日本을 정벌할 때에는 戰艦을 수리하고 進조하며 海上에서 擧兵함에 實로 유력하였으니 虎頭金牌를 賜하여 후인을 권장하기를 청한다.”<sup>52)</sup>고 하였다. 이에 金方慶은 元帝의 후한 대접과 虎頭金牌를 받고 돌아오니 高麗人으로 당시 金符를 받은 것은 金方慶이 처음이었다.<sup>53)</sup> 이러한 金方慶의 出世에 대한 誣告 사건이 있었으니 金方慶 등 43명이 반란을 도모하여 다시 강화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金方慶등을 가두고 鞫問하고 자 할때 誣告임이 입증되어 모두 석방되고<sup>54)</sup> 金方慶은 오히려 世子師가 되었다.<sup>55)</sup> 당시 金方慶의 權勢를 高麗史節要에서는

이때 方慶은 中贊으로서 나라일을 맡은 외에 또 虎頭金符를 받고 都元帥가 되니 權勢가 온 나라를 좌우하고 進담과 장원(莊園)이 州郡에 두루 있으며, 부하 장사들은 날마다 그 門에 모여 들고, 세력에 불고 위엄을 빙자하는 자가 중앙과 지방에 횡행하였지만 금하지 않았다.<sup>56)</sup> 고 하였다.

이러한 權勢에도 불구하고 金方慶은 또 한차례의 誣告를 당하니 忠烈王 3년(1277) 그의 나이 66세 때 韋得儒, 盧進義, 金福大등이 金方慶과 그의 아들 忻, 사위 趙朴등 4백여명이 江華에 들어가 叛하기를 꾀한다고 하고, 또 東征한 뒤에 兵器는 다 官에 바쳐야 하나 金方慶등은 집에 간직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죄를 꾸며 誣告하였다.<sup>57)</sup> 그런데 偉得儒는 東征時 左軍師 金仇의 부하로 從軍하여 金仇이 물에 빠져 죽었음에도 구원하지 않았다고 金方慶이 그의 職을 파면하였고, 盧進義는 珍島 공격때 싸움보다 남의 재산을 약탈하자 金方慶이 그 재산을 몰수하여 官에 들여 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金方慶에게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 하나,<sup>58)</sup> 이것은 日本 遠征 후의 論功行賞이 불공평한 것이 원인이었다.<sup>59)</sup> 王이 忻都, 石抹天衢와 함께 심문하였으나 誣告임을 알고, 다만 韓希愈 등 12人이 兵器를 간직하고 있는 죄만을 論하여 때 때려 놓아 주었다.<sup>60)</sup>

- 註 50)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 傳
- 註 51) ○〈上揭書〉世家 卷28 忠烈王 元年 12月 庚申條 ○勳爵制度：勳에는 上柱國(正2품) 柱國(從2품)의 2種이 있고, 爵에는 公(公侯國公, 郡公), 侯, 伯, 子, 男의 5種이 있는바 이들에 是는 食邑이 주어지고 土地가 주어져 封建貴族과 같다. 震檀學會 〈韓國史〉中世篇 P. 133.
- 註 52)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2年 秋 7月條
- 註 53)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54) 〈上揭書〉世家 卷28 忠烈王 2年 12月 丙子條
- 註 55) 〈上揭書〉列傳 卷17 金方慶 傳
- 註 56)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2年 12月條 「時 方慶 以中贊當國 又受虎頭金符 爲都元帥 權傾一國 田遠遍州郡 麾下將士 日擁其門 附勢假威者 橫行中外 而不之禁」
- 註 57)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3年 12月 丁卯條
- 註 58) 〈上揭書〉列傳 卷17 金方慶傳
- 註 59)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3年 12月條
- 註 60) 〈高麗史〉列傳 卷17 金方慶傳에 「得儒謂希愈曰 君何不恤我乎 我祿職而君得 賞我何罪耶」 또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3年 12月條에 「又第征倭軍功爵賞頗不均 人多缺望」



# 宗門의 現場

## 忠南 公州郡 正安面 田坪里 安靖公派門中編

아침 九時에 江南高速버스터 미널을 出發한 公州行 버스는 清州에서 一般道路로 進入, 鳥致院을 經由하여 公州에 到着한 時가 十一時半頃이었다.

公州는 六十年間 百濟의 서 울이라, 지금도 古都다운 냄새 가 물씬 풍기는 古스러운 고장 같다. 四方에 蒼蒼 같이 屹立한 산봉우리에 一千五百年의 歷史를 默黙히 말해 주는 많은 城址가 남아 있고, 錦江의 잔잔한 물결은 碧玉 보다 더 맑다.

公州의 古地名은 公州(熊津) 또는 熊州라고도 했는데, 百濟의 文周王이 北漢山城에서 이곳으로 서울을 옮겼다가, 다시 扶餘로 遷都할 때까지 六十年間 都邑地로 화려한 꽃을 피운 곳이다.

또한 公州는 忠清南道의 地理的 中心地요, 交通의 樞紐로, 高宗三十二年(一八九五)에는 公州府로 昇格하고, 다음 해는 忠南道廳을 公州에 두었으나, 一九二八年에 道廳을 大田에 빼앗긴 후로 老朽의 都市가 되어 아직도 邑規模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交通의 中心地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래서 公州 터미널에는 大都市 못지않게 많은 車들이 붐비고 있다.

가던 날은 장날이라, 거리마다 온통 장꾼들로 붐비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에는 인심 좋고, 말씨 부드러운 印象이 물씬 풍긴다.

「正安面田坪里로 가자면 어느 車를 타나요?」

거리에서 乘客을 案内하는 從業員에게 길을 물었더니, 二十代의 青年은 百餘M나 따라와서 「이 車를 타시고 石松停留所에서 내리세요!」하고 돌아간다.

무척 고마운 青年이다. 이 青年이 비록 天性的인 個人의 行動이지만, 그는 分明히 公州의 人心과 親切性의 代表인 것이다.

車中은 장꾼들로 超滿員이다. 깨끗이 舗裝된 道路, 竝리를 물고 달리는 交通量, 이 길은 바로 天安으로 通하는 大路이다.

公州에서 石松里까지는 不過十五分의 距離이다. 여기서 金弘默氏라면 三尺童子도 알고 있었다. 道路에서 約三百M, 陽地바른 산기슭에 翁기종기 모여 있는 山여재의 農家들, 여기가 正安面田坪里, 安靖公派會長 弘默氏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北으로는 車嶺山脈이 西海로 뻗어내리다가, 金鷄山에 精氣를 주어 絶景을 이루었으니 麻谷寺의 名刹은 一千五百年 동안 高僧의 修道場으로 내려왔고, 穴窟봉을 起點으로 東五里, 삼바실, 말짜바위 등 奇妙한 山地形局은 名堂을 찾아려는 地師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南으로는 멀리 계룡산의 靈山이 고개를 바라본다.

이 正安面에 安東金氏가 定着하기는 아마 壬辰倭亂을 前後한 時代로 推理된다.

安靖公(諱 九德)은 一九歲에 進士가 되고, 延安府使와 判通禮門事를 歷任하였고, 太宗十一年(一四〇二)에는 孫女가 太宗의 明嬪이 되자, 漢城府 判尹으로 千秋使가 되어 明나라에 使臣으로 다녀온 後, 知敦寧府事가 되고, 世宗十年에 別世하니, 安靖公의 諡號를 받았다.

이래서 王室과 인연을 맺은 安靖公의 아들 諱 五文公은 國舅로서 右軍司의 知摠節制使를 지내서, 工曹參判에 追贈되었고, 그의 아들 諱 仲淹은 副知敦寧府事를 지내고 兵曹參判에 追贈되었다.

安靖公의 後孫에서 가장 꽃을 피운 분은 安靖公의 曾孫이신 雙溪齋公이다. 公은 世宗十八年(一四三六) 丙辰에 出生하여, 十六歲에 生員이 되고, 二十九歲에 文科에 及第, 三年만에 다시 重試에 合格, 다음 해에는 俊試에 登第하여 吏曹參判을 지냈다.

雙溪公은 文章이 世上에 뛰어나고, 草書를 잘 썼는데, 晩年에는 首律을 즐기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 훌륭한 三絶을稱頌하였고 雙溪集이 刊行되기도 했다.

그러나 歲月은 흘러가고 政權에도 變革이 생겨 勢道는 曇雲에 같고 벼슬길마저 막히게 되니, 清廉을 信條로 삼아 온 집안은 活潑가 漠然한 境地에까지 이르렀고, 子孫마저 繁盛하지 못해서 六代를 내려와도 安靖公의 後孫은 諱 弘祖公과 士遇公뿐이었다.

安靖公의 後孫으로 이 湖西에 뿌리박아 定着하기는 士遇公인 듯하다.

士遇公은 譜牒 傍註에 그 職脚이 教官이라 했고 墓所는 石城 登高樂洞 辛坐로 記錄되어 있다. 石城은 지금의 扶餘郡 石城面으로 當時는 石城縣이었고 士遇公은 石城縣校의 教官이 아니었나? 하는 筆者의 推理가 잘못인지 모른다.

教官公의 아들 兄弟를 두었으니 執中公과 敬中公이며, 그 後 두 집안은 累代동안 獨子로 繼世하면서 先業을 잃지 않고, 文章과 經綸으로 處世하면서 僅 僅히 家門을 이어 왔고, 後日에 敬中公의 後孫들은 生活의 터전을 찾아 坡州로 떠났다가, 다시 堤川地方으로 移居해서 살고 있으나, 그數는 十餘戶에 不過하다.

그래서 公州의 正安面一帶에 살고 있는 宗中은 執中公의 後孫이다.

執中公의 집안은 아들 汝徽公 때부터 또 다시 七代 동안 獨子의 時代가 있었으니 그 零細한 程度는 可히 짐작할 수 있다.

安靖公派 宗中이 正安面 田坪里에 基址를 定한 분은 執中公의 六代孫으로 諱 達中이다. 그리고 達中公은 이 正安面에서 世奎·世益·世德·世哲等 四兄弟의 아들을 두었고, 宗門의 繁盛은 이때부터 始作하였다.

이제 正安面의 安東金氏는 三十餘世帶가 이 正安面에 本籍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世態는 이 모든 집안을 故郷에 남겨 두지 않는다. 急進하는 經濟成長과 農村의 不況은 靑壯年으로 하여금 都市

- 進出의 一大要因이 되고 있는 事實은 어느 地方이나 마찬가지 現實이다.
- 그래서 이 宗中도 田坪里, 北溪里 等地에는 十餘戶가 남아서 農業에 從事할뿐, 남겨지는 故郷을 떠나, 生業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安靖公 할아버지로부터 몇 대 동안은 서울에서 벼슬도 잘하시고 基盤도 남이 부러워할 程度였지만, 그 後로 漸漸 家勢가 어려워져서 僻僻이 흐터진 모양인데, 할아버지의 後孫들이 어딘가 있을 듯 하지만 찾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이렇게 말하는 會長 弘默氏는 爲先의 嚮念이 남달라, 그 伯氏 昌默氏와 함께 이미 失傳한 지 오래된 安靖公의 墓域을 찾기 위해 애써왔고 서울 永登浦에 居住하는 載默氏도 이에 呼應해서 마침내 數年前에 族譜의 記錄대로 驪州郡 南面 元承里에서 塋封과 碑石을 發見
- 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感應이라기보다 그 精誠과 努力의 結果라 아닐 수 없다.
- 그 後로 弘默會長은 散在하 是 宗親들을 糾合 督勵하여 墓域을 淨化하고, 誠損金을 모아 位士를 買入 歲一祀의 香火를 올리고 있다.
- 田坪은 公州 天安間의 道路를 끼고 있어, 交通의 不便은 없지만 마을은 山村의 티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을로는 은근대기는 農地整理도 할 수 없고, 배알된 밭들은 그런 대로 肥沃해서 몇해전만 하더라도 葉煙草의 生産으로 贊贊한 收入을 보았으나, 連作으로 인한 土壤의 酸化로 耕作이 不可能하여 지금은 고추와 참외 蔬菜의 栽培가 主된 收入源이며 畜産과 앞산에 栽培한 밤나무에서 나오는 收入도 적지 않다.
- (元榮記)
- ☆ 汝矣島 맨하탄 호텔에서 李台燮 科學技術院長官을 비롯, 關係專問家等 40余名을 招請, 海洋開發을 위한 朝餐會를 열고, 海洋開發에 對한 政府의 施政方案等을 協議하고 大學 教授等의 主題 發表가 있었다.
  - ☆ 慶南西部(晉州地方) 地方宗親會(代表 在善) 會員 26名은 지난 4월 1日, 忠烈公墓所와 安養 文英公墓所, 楊平 翼元公墓所를 巡禮省墓하고 大宗會館을 訪問하였다.
  - ☆ 提學公派 雲山門中에서는 監察公(諱 可虔) 墓所를 槐山 礪石峴에서 瑞山郡 雲山面 安好里로 移安하고 지난 3月29日, 堅碣 告由를 行하였다.
  - ☆ 지난 4月5日 漣川郡 嶺山面 阿帽里 崇義殿에서 開城王氏 宗親會員 및 16功臣의 後孫 2百餘名이 參班하여 春季大祭를 舉行하였다.
  - ☆ 지난 4月6日(陰 3月9日:寒食)에 達城郡 儒林에서는 文敬公(諱 壽童)의 享祀를 大邱市 智妙洞 文敬公廟에서 本孫 및 儒林 50餘名이 參班하여 盛大히 舉行하였다.
  - ☆ 大護軍公派宗中에서는 지난 4月11日(陰 3月14日) 羅州郡 金川面 竹川里 玉峴에 모신 大護軍公 以下 三代位 墓庭에서 春季歲享을 奉行하였다.
  - ☆ 判書公(諱 植) 後孫 100余名은 지난 4月13日(陰 3月16日) 康津郡 鶴川面 土馬里 墓庭에서 判書公 以下 四代位의 春季歲享을 嚴肅히 奉行하였다.
- ☆ 忠武公(諱 時敏) 紀念事業會에서는 지난 2月16日 下午 2時30分부터 서울, 世宗文化會館 大會議室에서 壬辰倭亂時 晉州大捷 慶祝과 忠武公의 忠節을 追慕하는 大典이 盛大히 舉行되었다. (관련기사 1面)
- ☆ 提學公派 沼植 宗親의 令愛, 容銀 孃은 지난 85年 6月에 프랑스國, 리용 2大學校에서 文學博士 學位를 取得하고 江原大學校 人文社會學科 佛語·佛文學科 助教授로 就任하였다.
- ☆ 郡事公派 富鏞 君은 지난 86年 6月에 美國 비지니아 工科大學校에서 統計學博士 學位를 取得, 國防科學 研究所 先任研究員으로 活躍中이다.
- ☆ 按廉使公派 道振 宗親의 令愛 喜 孃은 지난 86年 12月에 美國 메릴랜드 洲立大學校에서 社會學博士 學位를 取得하였다.
- ☆ 韓榮貿易(株) 副社長인 都評議公派(大宗會 理事) 會秀 宗親은 日本의 去來處의 하나인 小西六 寫眞工業(株)의 新年 賀詞交換會에 招請되어 지난 1月4日에 出國, 同月8日에 歸國하였다.
- ☆ 大宗會 總務部長인 都評議公派 元榮 宗親은 日本 東京所在, 韓國人犧牲者慰靈塔 奉安會 招請으로 지난해 11月14日에 出國, 日本 오기나와(沖繩)에 建立된 「韓國人慰靈塔」 慰靈祭에 參席하고, 東京·大阪·京都·神戶·名古屋 等地를 巡回하면서 在日宗親들의 動態와 大宗會의 趣旨 弘報等을 마치고 12月5日에 歸國하였다.
- ☆ 京畿開放大學 教授인 郡事公派 載鴻 宗親은 지난 2月26日 停年退職에 臨하여 功勞勳章 모란章을 叙授하였다.
- ☆ 永同稅務署長 按廉使公派 瑞會 宗親은 지난 3月4日附로 榮州稅務署長으로 轉補되었다.
- ☆ 大邱地方國稅廳 徵稅調查局長인 提學公派 淳植 宗親은 지난 3月4日附로 國稅廳 徵稅課長으로 轉補되었다.
- ☆ 按廉使公派 雲谷宗會在京宗人 45名은 지난 3月6日, 按廉使公派會長 在晚 宗親 引率下에 陵洞 忠烈公 先祖 陵所를 參拜하였다.
- ☆ 서울市 市政開發擔當官인 大宗會 監事(都評議公派) 昌信 宗親은 지난 3月17日附로 公務員教育院 庶務課長에 轉補되었다.
- ☆ 東遠産業 社長 郡事公派 在哲 宗親은 韓國水産振興會 會長으로서 지난 3月25日,



(前號에서 계속)  
이 때도 日本軍은 鎗矢를 쏘을  
것고, 그 鎗矢가 怪音을 내면  
서 虛空을 나다가 元軍은  
齊히 爆笑을 터트렸다.  
接戰이 始作되자 日本側에서  
一名의 騎兵이 先頭에 나와  
서 自己의 이름을 밝히고 相對  
方에서도 이와 같이 나와서 對  
戰을 하였다. 그러나, 元軍은  
名聲높은 武將이 많아서, 警眼  
間에 여러 사람이 齊히 둘러  
싸고 生捕해 버렸다. 그것도 한  
곳의 일이라면 몰라도, 가는 곳  
마다 이러한 狀況으로 生捕가  
되고, 殺害가 되니 勇猛스러운  
勇士들이 뒤를 이어 犧牲 되어  
갔다.  
日本軍이 이렇게 해서 勝  
算이 없다고 깨달았지만 臨時  
에 集團戰術을 轉換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또 敵을 잡아  
서 功名의 證表로 목을 잘라가  
려해도 漸漸危殆로운 일 뿐이  
었다.

그리고 兵器 또한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越等한 着異가 있  
었다. 元軍은 弓箭, 鎗, 刀, 鎗  
을 불면서 一時에 喊聲을 울렸  
고, 日本軍의 말들은 이 큰 소  
리에 놀라서 뒤를 앉으니, 敵軍  
을 向해 前進하기는 커녕, 自身  
의 말을 制御하기에도 精力을  
다 쏟아야만 했다.  
弓矢도 勿論 勿論했다. 日本軍  
이 長弓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  
해, 元軍은 短弓을 사용하였고  
화살 또한 짧아서 宏壯한 威力  
이 있었고, 況且 화살의 끝에는  
毒을 발라서 놀랍지 않은 輕  
傷에도 甚한 苦痛을 주었다.  
더욱히 鐵炮에 있어서 是 全  
然 夢想도 못해 본 新兵器였다.  
그것은 큰 鐵丸 속에 火藥을 채  
워넣고, 火繩에 點火해서 날리  
니 空中에서 轟音과 閃光을 發  
하면서 爆發해서 人馬의 耳目  
을 震동했다. 그것도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金屬으로  
만든 筒으로 發射하는 一種의  
大砲였다. 그러나 日本人은 이  
것이 震天雷라는 것을 알리 萬  
無했고 當時의 日本人은 火藥

의 이름조차 몰랐으니 當황하  
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이러한 戰術의 相違點이나  
蒙古軍 來襲의 戰爭에 對해서  
는 누구나가 똑같이 말하는 有  
名한 事實이나 이것은 元來의  
蒙古軍戰法 그대로는 아니었다.  
當初에 蒙古가 中央아시아를  
席捲한 것은, 輕裝騎兵만으로  
編成한 集團에 依한 戰術을 完  
成하고, 이로써 넓은 草原을 疾  
風같이 行動한 까닭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輕裝騎兵은 山과 森林  
이나 濕地가 많은 곳에서는 別  
로 効力이 없고, 進擊의 速度  
또한 衰鈍해졌지만, 東亞細亞  
征服이 進行됨에 따라 蒙古軍  
의 戰法도 漸次로 그 方面의 地

# 日本史에서 본 東征記

~ 4 ~

의 이름조차 몰랐으니 當황하  
는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이러한 戰術의 相違點이나  
蒙古軍 來襲의 戰爭에 對해서  
는 누구나가 똑같이 말하는 有  
名한 事實이나 이것은 元來의  
蒙古軍戰法 그대로는 아니었다.  
當初에 蒙古가 中央아시아를  
席捲한 것은, 輕裝騎兵만으로  
編成한 集團에 依한 戰術을 完  
成하고, 이로써 넓은 草原을 疾  
風같이 行動한 까닭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輕裝騎兵은 山과 森林  
이나 濕地가 많은 곳에서는 別  
로 効力이 없고, 進擊의 速度  
또한 衰鈍해졌지만, 東亞細亞  
征服이 進行됨에 따라 蒙古軍  
의 戰法도 漸次로 그 方面의 地

勢에 適合하게 變해 온 것 같았  
다.  
또 輕裝騎兵이 가장 困難을  
겪었다는 攻城戰도 戰爭의 技術  
이 發達함에 따라 城壁을 破壞  
하는 方法을 研究해냈다고 하  
였다.  
그러나 二次의 東征 때, 博多  
灣 海岸一帶을 攻擊한 軍師는  
指揮者 以外는 騎兵이 아니  
고 輕裝의 步兵이었고, 또 編成  
도 蒙古軍 以外에 高麗軍과 漢  
人軍이 있어서 그 戰法 또한 元  
來의 蒙古戰法만이 아니었다는  
것도 當然한 事實이었다.  
當時에 日本軍의 戰法은 一對  
一의 騎馬戰으로서 이에 必要  
한 長槍과 長弓을 사용했기 때

문에 徒兵의 集團에 包圍가 되  
어 인제나 苦戰을 免할 수 없는  
形便이었다.  
이렇게 해서 日本軍은 戰團  
의 始作부터 苦戰에 苦戰을 거  
듭하였고, 漸漸 反復되어 終乃  
는 大軍의 追擊을 받게 되고,  
마침내 日本軍은 疲勞에 지쳐  
서 退却의 구명만 찾다가 日暮  
가 될 때는 舉皆가 對敵할 생  
각을 버리고 城中에 처박혀서  
나오지 못하였다. 고 「蒙古襲來  
繪詞」에 記錄되어 있다.  
또 「八幡愚童記」에는  
「博多 宮崎를 버리고, 大軍이  
一일의 合戰을 견디지 못해,  
水城에 籠落한 일 哀惜하도  
다. 愚昧한 百姓에 이르기가  
지 歎息하지 않는 者 없었도  
다.  
라 記錄되어 있다.  
밤에는 하프사카(箱崎) 方面  
에서는 여러 곳에서 불기둥이  
치솟았고 軍神을 爲한다는 箱  
崎八幡宮도 불타버렸다.  
그해 十月二十日... 盡終日  
爆音과 喊聲으로 天地가 振動  
하는 博多나 箱崎의 밤은 颶風  
이 지나간 뒤와 같이 고요하였  
다.  
全然 一方의 優勢한 戰團  
을 敢行한 元軍은 밤이 되자,  
追擊의 氣勢는 보이지 않고, 全  
員이 軍船으로 돌아갔는데, 그  
理由는 알 수 없었으나 이것이  
元軍으로 봐서는 失敗의 原因  
이요, 運命의 岐路이었다.  
이날 戰團에서 元軍의 損失  
은 아주 輕微하였으나, 日本軍  
의 主將格인 少貳 가게스개(景  
資)가 逃亡하면서 船 火살에 맞  
아 重傷을 입은 左副元帥 劉復  
亨 때문에 元軍이 다른 作戰會  
議를 하기 위해서 一段 全軍이  
乘船했다는 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날 밤 子正이 가까  
워지면서 부터 바람이 불기始  
작하면서 波濤가 사나워지더니  
瞬息間에 바람은 狂風으로 變  
하고 산더미 같은 波濤는 元軍  
의 戰艦을 모조리 뒤엎기 시작  
했다. 이러한 狀況에서 元來  
大陸에서 鍛鍊되고 陸戰만을 經

驗한 元軍은 中心을 잡지 못하  
였고, 將軍을 마저도 指揮의 方  
法을 생각할 餘裕를 잡지 못하  
고, 배는 한척 한척씩 沈沒하  
는데, 海上의 狂波 위는 阿鼻  
叫喚을 響게 하였다.  
大多數의 軍船은 難破되고,  
或는 아사세(淺瀬)의 海岸으  
로 밀려 올랐다. 따라서 溺死  
者의 數는 不知其數이고, 高  
麗의 左軍指揮官 金佐 지도 水  
死하였다.  
高麗史에 依하면 이때 戰死  
한 麗 元軍의 戰死者와 溺死者  
를 無慮 一萬三千五百名이라 記  
録되어 있다.  
한편 그날 밤, 日本側에서는  
男女老若할 것 없이 晝間의 慘  
狀에 휘말려 모두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山間으로 逃避하였어  
도 夜間의 奇襲을 怯정하면서  
生氣를 잃은 狀態로 밤을 세웠  
다. 그러나 날이 밝아지고 가  
슴을 조이면서 海上을 바라봤  
을 때 蒙古의 軍船은 자취 없이  
사라졌고 民衆들은 꿈 속에서  
깨어난듯이, 울고 웃으면서 겨  
우 生氣를 찾았다"고 日本史에  
는 적혀 있다. 그리고 아직도  
僅僅히 沈沒을 免하고 있는 배  
들은 右往左往하다가 日本軍이  
接近하면 甲冑도 武器도 모두  
버리고 投降하였다. 그러나 이  
들 敗殘兵의 목은 日本軍 武士  
들에 依해 功名의 證表로 모조  
리 베이고 말았다.  
이날의 太風雨를 日本은 「가  
마가제(神風)」라고 시고 二七五  
년 三月이었고 前例대로 高麗  
王은 그들의 案內를 위해 徐贊  
上佐를 遣り 日本으로 보냈다.  
그러나 世祖는 그렇게 日本  
에 外交的 方策의 수를 씀과 同  
시에 한편으로는 過重한 負擔  
으로 窮乏에 빠져있는 高麗에  
遠征軍을 보내서 駐屯케 하였다.  
高麗에서는 日本遠征將軍金

에 元軍이 對馬島를 侵犯한  
事實이 그달 十七일에 겨우 報  
告되었다. 그리고 二十八일에  
老岐島가 占領되었다고 京都  
에 傳해졌다.  
따라서 十一月一日에야 겨우  
幕府에서 中國以西(本州의 西南  
部 地方)의 守護에게, 元軍이  
來襲하면 鎌倉御家人(幕府의 直  
轄所) 뿐만 아니라, 幕府의 勢  
力이 미치지 못한 莊園領主의  
支配地인 本所一圓地의 住民도  
召集해서 防禦에 臨하라"고 前  
例없는 非常指令이 發令되었고  
그다음날(十一月二日)에는 京  
都에서 龜山上皇이 親書의 祈  
禱文을 主要한 陵所에 보내서  
外敵退를 祈願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元軍이 九州地方에서  
遭難으로 因해 退却한 消息이  
京都까지 傳達되기는 十一月六  
일의 일이었다.  
한편, 杜世忠의 一行은 四月  
十五日, 나가노(長門)의 무로  
쓰(室津... 지금의 山口縣豐浦町)  
에 上陸하였다.  
이들이 이번에는 九州地方이  
아닌 長門을 擇한 理由는 알 수  
없으나, 얼마 후에 大宰府로 護  
送되었고, 日本幕府는 變變을  
當하고 아직 半年도 못되는 때  
이라 곧바로 嚴重한 防禦策을  
취하였다.  
우선, 元使가 이번에는 長門  
에 上陸했다고 해서, 그해 五  
月에는 山陽地方의 諸國에 布告  
해서 長門을 비롯한 要害地方  
의 防禦를 堅固히 할 番役을 命  
하였다. 또 元使가 長門에 到  
着하였을 때, 그곳의 守護들이  
警備를 憑藉해서 멋대로 兵糧  
을 徵發한 것을 問責하고, 새로  
히 九州一帶에 布告해서, 前役  
에 消極的 態度로 戰團에 臨한  
者를 責해서 今番에는 嚴罰에  
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幕府가 嚴重한  
手段을 構築함과 同時에 元의  
壓力은 尙일 사이도 없이 繼續  
되고, 日本의 危機는 눈앞에 다  
가오고 있었다.  
八月에 大宰府는 杜世忠 一  
行을 關東으로 護送했다. 그것  
은 交涉의 責任을 幕府가 直接  
맡게 하는 데 便宜를 주자는 處  
사는 아니었다.  
九月四일에 執權者 도키무네  
(時宗)은 杜世忠의 一行을 다  
쓰노구치(龍之口)에서 모조리  
斬殺하였다.  
이러한 處事는 外交使節을 罪  
人으로 몰아서 죽였다는, 생각  
조차 할 수 없는 異例의 處置였  
다. 그러나 幕府로서는 今後로  
日本에 對해서 完全히 손을 쓰  
지 말라는 斷乎한 決意를 表明  
한 것이었다. 이는 分明히 元  
나라로 바서는 아직도 外交折  
衝의 余地가 있다고 생각했겠  
지만은 日本側은 一時 中斷된  
戰時態勢로 밖에 볼 수 없었다.  
(계속)

## 再征日本

元의 皇帝 世祖(후비라이)는  
日本遠征이 自身の 生覺대로 成  
果를 거두지 못한 點은 認定한  
바이지만 그렇다고 敗北라고는  
勿論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東  
征軍이 日本에 上陸해서 實戰  
에서는 勝利한 것이 分明하였  
기에.....  
折都와 洪茶丘가 燕京에 가  
서 東征의 事實을 奏上한 지 한  
달도 채 못됐는데 또다시 宣諭日  
日本使단 日本에게 朝貢과 服從  
을 說諭할 任務을 使臣인 것  
이다.  
蒙古人 杜世忠과 漢人 何文  
著가 그 莫重한 使命을 띠고,  
開京에 到着한 때가 一二七五  
年 三月이었고 前例대로 高麗  
王은 그들의 案內를 위해 徐贊  
上佐를 遣り 日本으로 보냈다.  
그러나 世祖는 그렇게 日本  
에 外交的 方策의 수를 씀과 同  
시에 한편으로는 過重한 負擔  
으로 窮乏에 빠져있는 高麗에  
遠征軍을 보내서 駐屯케 하였다.  
高麗에서는 日本遠征將軍金

## 祝 發 展

**金 進 秀**  
(都 評 議 公 派)

愛知縣稻澤市長野2丁目6-12 稻澤맨손 102  
電話：(0587) 21-3403

提學公派 **金道應**  
天原郡東面長松里

大宗會理事  
平和商會代表 **金洙栢**  
(翼元公派)  
서울... 東大門區 淸涼里 靑果市場內  
電話... 九六六一八五七七五

新和纖維工業社(輸出業体)  
社長 **金璇默**  
서울·鍾路六街一五五一  
電話... 七四三一六七五三〇四  
만촌당 B/D 二層



# 三別抄 (6)

(前號에서 계속)  
최충현이 죽고, 그의 아들 최우(崔瑗)가 정권을 계승하였다.

최충현은 무력으로 정적을 토벌하는 한편 민중의 선무(宣撫)에도 철저하여서, 혹은 관작을 주기도 하고, 또는 부곡(部曲)이나 향(鄉·所)에서 살고 있는 친민을 수박에서 풀이주어, 현(縣)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최충현이 일대의 노력으로 기초를 굳건히 닦은 최씨 정권은, 최우의 대에 와서 더욱 굳어져서, 무인정권의 체제가 바로 잡혔을 뿐 아니라, 최우는 단순한 무인(武人)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문(文)·무(武)의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좌우하는 권좌(權座)에 군림하였다.

최우가 정권을 이어 받게 되자, 그 아버지 최충현의 정책과는 달리, 인심을 얻을려고 전력을 경주하였다. 따라서, 최우는 최충현이 소장하던 금은·보화를 임금에게 바치고, 최충현이 탈취한 공사(公私)의 전장을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또 그 아버지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괴롭히든 관리를 유배, 또는 파면시켰다.

최우는 그 아버지 최충현과는 달리, 많은 학문을 배워서 경륜을 쌓았고 특히 그의 글씨(楷書)를 비롯해서, 행서(行書)와 초서(草書)에 모두 능하였다. 따라서 최충현의 시대에 기용(起用)한 문신을 존경하여, 一·二·三·五년부터는 정방(政房)을 자기 집에 두었고, 또 집안에는 서방(書房)을 두어서, 문객 중에 명망있는 학자들(禮)로 대하고, 이를 또

공이 있으리라는 소문이 파다 해지자 최우는 왕에게 강화로 천도(遷都)할 것을 청하고, 자기는 녹전차(祿轉車) 백여대를 동원하여 모든 가재를 강화로 옮기고, 왕으로 하여금 천도를 단행케 하였다.

강화에 들어 간, 최우는 강화천도에 대한 공훈으로 다시 최우(崔瑗)에 봉해졌다.

최우는 강화의 방비에 안배를 기하기 위해서, 연해안 일대에 성을 쌓고,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많은 사재를 들여서 장학(獎學)에 힘썼다.

또, 최우는 치안(治安)의 허술함을 걱정해서, 다시 군인으로서 용병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무사를 뽑아서 야간(夜間)의 경비에 당하게 하여 이를 야별초(夜別抄)라 하였으니, 이가 삼별초의 시초(始初)였다.

최우는 이 야별초군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공훈에 따라, 벼슬도 주게 되니, 삼별초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왕성해지고, 그 수도도 점점 부러나서, 이를 두개의 부대로 편성하고 좌별초(左別抄)와 우별초(右別抄)로 나누어 부르게 하였다. 또 그 후에 몽고에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돌아와서 한개의 부대를 편성하여, 이를 신의별초(神義別抄)라 하고, 이 세개의 편성을 삼별초군이라 하였다.

삼별초군이 한 때는 평양까지 출동해서 몽고군을 물리친 일도 있었으나, 주로 강화에서 최우의 사저(私邸)의 경비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최우가 학자를 기용해서 정치의 중추를 삼고, 무부(武夫)를 뽑아, 경비와 을 철저하게 하면서 유일한 학문의 전당(殿堂)인 국자감(國子監)을 진흥시키기 위해 양현고(養賢庫)에 삼백곡(斛)을 시납(施納)하고, 한편으로는 대장경(大藏經)의 제판(製版)에 많은 사재를 투입해서 완성시켰으나, 권세는 곧쉴수록 전횡(專橫)으로 흘러서 끝내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최우는 천도공신

(遷都功臣)이란 큰 공로가 있어 공신당(功臣堂)의 벽상에 도형(圖形)되었고 사후(死後)에 시호를 광명공(匡烈公)이라 하였다.

高宗 三十八年(一一四九)에 최우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 최항(崔沆)이 정권을 계승(繼承)하였다.

최항은 창기(娼妓)의 소생으로 일찌기 송광사(松廣寺)의 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가 되었을 때 최우의 사망으로 정권을 이어 받아, 은정광록대부 추밀원부사 이병부 상서 어사 대부 태자빈객(銀青光祿大夫樞密院副使吏部尚書御史大夫太子賓客)이 되고, 동북면(東北面)과 서북면(西北面)의 병마사(兵馬使)를 겸하고, 교정별감(敎定別監)까지 지냈으나, 그렇다 할 지저(治績)는 없었고, 고종 四四年(一一五七)에 세상을 마치고 시호는 진평공(晉平公)이다.

최충현이 잡은 정권은 이제 제4대 최의(崔宜)에게로 넘어왔다.

최의는 최항의 아들로서 경림사(景林師)에 기(芮)에게 시(詩)와 필법(筆法)을 배웠고, 권위(權位)에 정치, 정세(鄭世臣)에게 예(禮)를 배워, 상당한 인격을 도야(陶冶)한 인물이었다. 처음에 정종내급사(殿中內給事)가 되었다가, 아버지 최항이 죽고는 교정별감(敎定別監)을 승용하고 정방(政房)을 인수하였다.

최의는 정권을 잡게 되자, 연안(延安)의 주택(住宅)과 정평궁(靖平宮)을 왕부(王府)에 바치고, 가미(家米)二,五七〇여 섬을 내장원(內莊院)에, 포백(布帛)과 기름과 꿀을 대부사(大府寺)에 각각 바치고, 또 흥년에 창고를 풀어, 권부(權務)대정(隊正)·재정(宰正)·우위(右衛)·신위(神衛) 등의 교위(校尉) 이하와 방리(坊里)의 사람들을 거느린 수로서 많은 인심을 쌓았다.

그러나 최의의 이러한 선행은 포리(表裏)가 있는 처사였고 그가 우부승선(右副丞宣)이 되고 부리는 장군 번식(邊軾) 등을 강화수위사(江華收復使)란 직책을 주어서 약탈을 자행케 하고 선대(先代)의 본을 따서 노비에게 벼슬을 주는 특혜를 만들어, 낭장(郎將)의 높은 자리까지 주면서 현량한 신비는 멸시하고, 경박한 신비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참소만 듣고 살육을 함부로 하게 되니, 자연히 양심있고 현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최의가 이렇게 소심적(小心的) 처사로 정권을 휘두르는 것은 다만 삼별초라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며, 삼별초들은 다만 최의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서 친민(親民)의 고역에서 해방되어 높은 벼슬을 얻고, 권세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최의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반의(叛意)에 차인 사람은 김준(金俊)이었다.

김준은 김인준(金仁俊)이라고도 했는데, 그는 활을 잘 쏘고, 술을 잘 먹는 호걸(豪傑)로서 박송비(朴松庇)와 송길유(宋吉儒) 등으로 말미암아 최우에게 친거되어 신임을 얻게 되고 전진승지(殿前承旨)를 거쳐 별장(別將)으로서 최우를 섬겼다. 그러나 최의가 집권하고부터 간악한 최양배(崔良伯)와 유능(柳能)같은 사람도 신임하고 유능한 인재들도 의(度外)로 하자 김준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리가 물론 최씨의 정권 밑에서 잔뼈가 굵었고, 살이 굳어져서, 오늘의 지위에까지 올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위가 모두 정상(頂上)에 올라 더 오를 곳이 없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 천민에게 벼슬을 주고, 그 지위를 높히자면 이용의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죄목을 만들어서 처형을 당하든지, 면서로 귀양 가는 길 밖에 없을 것이요.

모의 하였다. 그러나 최의의 밑에는 삼별초란 병역이 있으니, 김준은 이 삼별초를 움직이지 않고는 거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강구하였다.

이때 마침 국왕은 전성사(乾聖寺)와 부령사(福靈寺)를 차례로 행어(幸御)하게 되어 삼별초도 많은 병력이 호위에 임하게 되었다.

최의에 대한 불만은 김준이 나 유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급인 삼별초 가운데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김준은 왕이 행어한 틈을 타서 삼별초의 지휘자 중에서 현정권(顯正權)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몇몇 사람을 모아 거사(擧事)에 대한 모의를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유경을 비롯해서, 박송비, 최온, 같은 사람도 함께 자리를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몽고의 침공을 받고 있으며, 조정은 이미 오래 되었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재 교정별감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는 최의는 국왕을 체제놓고,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니 이제 국정이 걸잡을 수 없이 문란해졌고, 심지어 미친한 노예에게까지 마음대로 높은 벼슬을 주어 자신의 신변 확보에만 급급하니 앞으로 우리의 장래는 암담할 따름이오.

우리가 물론 최씨의 정권 밑에서 잔뼈가 굵었고, 살이 굳어져서, 오늘의 지위에까지 올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위가 모두 정상(頂上)에 올라 더 오를 곳이 없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 천민에게 벼슬을 주고, 그 지위를 높히자면 이용의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죄목을 만들어서 처형을 당하든지, 면서로 귀양 가는 길 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나 최의의 이러한 선행은 포리(表裏)가 있는 처사였고 그가 우부승선(右副丞宣)이 되고 부리는 장군 번식(邊軾) 등을 강화수위사(江華收復使)란 직책을 주어서 약탈을 자행케 하고 선대(先代)의 본을 따서 노비에게 벼슬을 주는 특혜를 만들어, 낭장(郎將)의 높은 자리까지 주면서 현량한 신비는 멸시하고, 경박한 신비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참소만 듣고 살육을 함부로 하게 되니, 자연히 양심있고 현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최의가 이렇게 소심적(小心的) 처사로 정권을 휘두르는 것은 다만 삼별초라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며, 삼별초들은 다만 최의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서 친민(親民)의 고역에서 해방되어 높은 벼슬을 얻고, 권세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최의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반의(叛意)에 차인 사람은 김준(金俊)이었다.

## 原稿募集

本報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玉稿를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 送付해 주시면 採擇登載에 하겠읍니다.

- 一、論文 崇祖睦族과 倫理道德에 奇與되는 內容
-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한 經過記事
-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佳話 및 善行
- 一、職位的 陞進이나 異動事項、海外 旅行關係 逸話
-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

敬順大王陵享奉行案内

敬順大王陵享을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宗親 僉位께서 많이 參祀하시기를 仰望 하나이다.

日時: 一九八七年 五月一日(陰四月四日)

東大門區 昌信洞 同德빌딩 (旧同德女高) 廣場에서 午前八時三〇分 出發

會費: 一人當 壹萬圓

※ 往復車便 및 晝食、紀念品 提供



## 原稿募集

本報發展을 위하여 江湖諸宗의 玉稿를 歡迎하오니 다음 要領에 依하여 作成 送付해 주시면 採擇登載에 하겠읍니다.

- 一、論文 崇祖睦族과 倫理道德에 奇與되는 內容
- 一、各派宗中 및 宗親會에서의 行事에 對한 經過記事
- 一、宗親中에서 있었던 佳話 및 善行
- 一、職位的 陞進이나 異動事項、海外 旅行關係 逸話
- 一、先祖에 關係되는 傳說
- 一、其他 宗親들에게 알리고 싶은 事項

敬順大王陵享奉行案内

敬順大王陵享을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宗親 僉位께서 많이 參祀하시기를 仰望 하나이다.

日時: 一九八七年 五月一日(陰四月四日)

東大門區 昌信洞 同德빌딩 (旧同德女高) 廣場에서 午前八時三〇分 出發

會費: 一人當 壹萬圓

※ 往復車便 및 晝食、紀念品 提供